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마리노스 순교자

루가 제11주일 / 주님의 선조들의 축일

하깨 예언자, 성 마리노스 순교자

제4조,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토م 성찬예배에서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A 214
- 주일 입당송 '모두 가까이 와서' / 14, A 42
- 주님 선조들의 찬양송
- 성당 찬양송
- 성탄 대림절 시기송 / 208, B 253
- 사도경 : 골로사이 3,4-11 / 봉독서 362
- 복음경 : 루가 14,16-24 마태오 20,16 / 130, B 78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마리노스 순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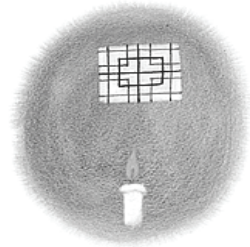
구약성서 마카베오(하) 7장에는 일곱 아들과 그 어머니 솔로모니의 영웅적인 순교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눈앞에서 일곱 명의 아들이 한 명씩 순교의 죽음을 당할 때마다 그 어머니는 슬피 울지도 그 죽음을 가로막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이 장렬히 순교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교회의 순교자들의 역사에는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12월 16일을 축일로 기념하는 성 마리노스 순교자(3세기 말)

의 부모도 이와 같았습니다. 순교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로마의 유명한 귀족이었지만 아들이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가 합당하고 거룩하게 죽을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되거나 부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신앙은 단지 영웅적인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의 순리까지도 뛰어넘게 만듭니다.

한 해를 보내며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각 사람이 태어날 때 생김새와 성격 등이 서로 다르게 하셨다. 여러 사람을 다양하게 살게 하셨지만,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가 사랑하며 일치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악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이 주신 태초의 선한 모습을 잃게 되어 약육강식의 그릇된 삶을 살게 되어, 어려서부터 생각이나 행동 등을 올바르게 갖도록 꾸준한 교육을 받아야만이 그나마 선과 악을 구분하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일궈낸 많은 학문들이 있고 저마다 그런 학문들을 잘 배워서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 그 많은 세상의 학문들은 전부 어디에서 왔는지, 원조는 어디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세상의 학문들은 나름대로의 등급이 있고 상도 많다. 끊임없이 학문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세상 지식은 쌓여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 저마다의 영리 목적으로 학문이랍시고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참된 학문의 원조는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고 나아가서 하느님이 주신 태초의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와는 거리가 먼 학문을 추구하고 있으니 그 학문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다.

어느 날 교수 한 분이 뽀르피리오스 성인을 만나러 왔다. 그분의 영적 사제는 성인이었고, 그 교수는 성인에게 좋은 책이 나왔다면 한 권의 책을 보여 주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읽는 책으로서 아주 유명한 베스트 셀러였다. 그러나 성인은 그 책을 보시자마자 그 책은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게 하므로 읽지 말라고 하셨다. 의아하게 생각한 교수는 성인의 말을 참고로 시간을 갖고 주의 깊게 읽어보았다. 그랬더니 성인의 말씀대로 그 내용 속에는 참된 지식과는 달리 교묘히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많이 있었던 것이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며, 올해는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고자 다짐하곤 하지만, 한 해를 마감할 때쯤 되면 늘 후회스럽기만 한 것은 아직도 하느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해 죄를 짓고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며 영적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세상 지식이나 쫓고 헛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돌아보면 후회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참된 학문과 지식은 오로지 하느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에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얻은 영적 학문과 지식으로 자신을 가꿔서 세상에 조그마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 알렉산드로스 한의중 신부



파괴 속에서 누리는 기쁨 (트리폰 수도원장)

경제 불황, 높은 실업률, 태풍, 기상 이변, 쓰나미, 지진, 화재, 홍수, 가뭄 등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모두를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 여성이 제게로 다가와 하느님께서는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놔두시는지 물었습니다.

저 자신 또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의 마음은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였고, 그래서 날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마음 속에 평화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제 자신을 하느님 곁에 두며, 여러 가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더러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평화야말로 온갖 이해를 넘어서는다고 말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과 연결되고 그 속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로 온통 파괴가 넘쳐나는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속에서 나와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세상은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평화를 발견하기 위해 (죽음 이후의) 다음 세상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회개하며 하느님께로 돌아서기까지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주의를 집중해야만 합니다. 곧, 우리는 단지 어떤 (일어난)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대비책을 준비하는 행동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 아타나시아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축일을 축하합니다

12월 17일 축일을 맞이하는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의 신부님과 신자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성 디오니시오스 성인의 중보와 하느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면서 성장해나가길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방한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께서는 지난 12월 3일(월)~8일(토)까지의 한국 방문 일정을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무사히 마치시고 귀국하셨습니다.

3일 인천 공항에서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신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국하신 세계총대주교께서는 4일 공식 일정으로 NCKK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홍정 총무와 이야기를 나누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정교회 대교구에서 공식 기자 회견을 진행하시고, 이피게니아 콘도네온도스 그리스 대사 주최 만찬에 참여하셨습니다. 5일에는 한국정교회 대교구 성직자들과 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 격려와 축복을 해주셨고, 오후 6시 30분에 성 니콜라스 축일 대만과를 집전하셨으며, 후에 모든 신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6일 오전에는 일행으로 함께 오신 모든 대주교들, 성직자들과 함께하는 성 니콜라스 축일 성찬예배를 집전하셨고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성찬예배에는 문화체육부 도종환 장관을 비롯하여 정교회 국가 대사들, 한국 가톨릭 교회와 NCKK의 지도자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하였고, 후에 세계총대주교님과 특별한 오찬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7일에는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정교회 전통에서 본 생태학, 신학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란 주제로 개최된 환경 문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기조 연설을 하셨습니다. 또한 세계총대주교님의 저서『신비와의 만남』한국어판 출판기념회를 가지셨습니다.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대교구에서 세계총대주교 송별 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날 8일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여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추모하는 추도식과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식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정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인천 성 바울로 성당 2019년도 신자총회 공고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운영위원회는 2019년 1월 21일(월요일)에 개최되는 한국정교회 대교구의회 참석 준비를 위해 인천 성 바울로 성당 2019년도 신자총회를 오는 12월 30일(주일) 성찬예배 직후에 성당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18세 이상 세례받은 정교회 신자는 모두 참석하여 신자회비를 납부한 후 표결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간 예식

- 12월 17일(월) 다니엘 예언자, 성 디오니시오스 예기나의 주교 축일
 - 12월 20일(목) 성 이그나티오스 안디오키아의 주교순교자 축일
-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